

레미콘 산업동향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조사과〉

1. 1998년 1/4분기 건설경제동향

한국은행이 발표한 97년 1/4분기 국내총생산(잠정)에 의하면, 1/4분기중 수출이 높은 신장률을 나타냈으나 생산면에서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감소세가 확대되고 실질소득의 감소와 고용불안에 따른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민간소비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도 모두 부진을 보이는 등 내수가 크게 부진하여 실질국내총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3.8% 감소하였고 실질GNP도 대외지급이자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5.3%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표 1]에서와

같이 민간건설은 주택등 주거용 건물건설과 공장, 사무실등 비주거용 건물건설이 모두 감소하였고 토목건설도 전력시설, 경지정리, 용수개발등의 농림수산부문에서 부진을 보여 전체적으로 8.1% 감소하였다. 또한 공공건설은 지하철 건설이 호조를 보였으나 정부투자예산의 건축 운용으로 공공관서를 포함한 공공건물, 일반도로, 도시토목 등 대부분의 건축 및 토목공사가 부진하여 6.2%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건설투자도 전년동기 대비 7.7%감소하는 부진을 보였는데 건물건설투자는 부동산경기 침체 및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5.7% 감소하였고 사회간접자본

[표 1] 건설업의 성장률 및 건설투자의 증가율 추이

(단 위 : %)

구 분 \ 기 간		96년		97년				98년
		1/4	1/4	2/4	3/4	4/4	년간	1/4
건 설 업		10.5	-0.9	2.5	4.8	3.6	2.8	-7.6
민 간 건 설	합 계	7.7	-1.7	-0.1	1.9	0.2	0.2	-8.1
	주 거 용	6.6	-7.8	-4.5	-6.2	-0.9	-4.9	-2.4
	비주거용	3.7	-3.2	-5.2	-0.3	-7.6	-4.0	-9.3
	토 목	22.5	16.2	11.2	17.4	6.9	12.0	-18.8
정 부 건 설		28.0	1.3	9.5	7.5	11.1	8.5	-6.2
건 설 투 자		10.5	0.8	1.8	3.8	3.7	2.7	-7.7
건물건설투자		5.7	-3.7	-3.3	-2.5	-1.8	-2.9	-5.7
기타건설투자		23.3	11.3	8.9	12.5	9.1	10.2	-11.6

자료 : 한국은행 '1998년도 1/4분기 국내총생산(잠정)' 참조

[표 2] 98년도 상반기 건축허가면적 현황

(단 위 : 천㎡, %)

구 분	1월			2월			3월			1/4분기		
	98년	97년	증감율	98년	97년	증감율	98년	97년	증감율	98년	97년	증감율
전 체	6,137	7,372	-16.8	5,821	6,279	-7.3	5,654	9,202	-38.6	17,612	22,853	-22.9
주거용	4,319	3,849	12.2	3,435	3,128	9.8	3,571	4,697	-24.0	11,324	11,674	-3.0
상업용	1,059	1,962	-46.0	1,109	1,618	-31.5	1,014	2,520	-59.8	3,182	6,099	-47.8
공업용	226	662	-65.9	213	574	-62.9	312	1,098	-71.6	751	2,334	-67.8
기 타	534	900	-40.7	1,065	960	10.9	757	886	-14.6	2,355	2,746	-14.2

자료 : 건설교통부

시설 등에 대한 투자도 전력시설, 항만 및 공항시설, 상하수도 등에 대한 투자가 크게 줄어들어 전년대비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의 '98년도 1/4분기중 건축허가 동향'에 의하면 98년 1/4분기중 전국의 건축허가면적은 경제 불황의 심화로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공업용허가면적의 부진이 두드러지고 주거용 허가면적도 부진을 보임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853천㎡에 비해 22.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1, 2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사업 승인 면적이 증가하여 각각 전년동기대비 12.2%, 9.8%증가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3월(전년동기 대비 -24.0%) 큰 폭의 감소세로 반전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11,674천㎡대비 3.0%감소한 11,324㎡가 허가되었다.

또한, 공업용 건축허가면적은 1/4분기중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기 시작하면서 공장 신증설과 설비투자를 기피하여 1/4분기

중 전체 공업용 허가면적이 전년 2,334㎡에 비하여 1/4 이하 수준에 머문 751㎡가 허가되었다. 한편 상업용 건축허가면적도 전년 6,099㎡대비 47.8%감소한 3,182㎡가 허가되는 부진을 보였다.

기타 문교·사회용 건축허가 면적도 2,355㎡가 허가되어 전년 2,746천㎡에 비해 14.2% 감소하였다.

한편 건설수주는 도로교량의 발주 증가는 있었으나 지난해 지하철, 발전시설의 발주 영향으로 상대적인 감소를 나타냈고, 민간부문

[표 3] 98년도 1/4분기 건설수주액 현황

(단 위 : 전년동월비 %)

구 분	97년 연간 전년비	1998년도				
		1/4분기	1월	2월	3월	
건설수주	4.7	-24.5	-19.3	-19.9	-29.6	
발주자별	공 공	6.3	-7.9	-0.7	-2.5	-13.9
	민자유치	1,226.0	733.0	-38.1	-98.1	824.1
공종별	건 간	-6.5	-45.0	-32.9	-31.5	-60.4
	축	-1.8	-42.7	-39.4	-27.8	-56.3
	주 택	-4.4	-5.0	52.3	21.9	-34.7
토 목	14.5	-24.0	10.5	-8.5	-3.1	

에서는 사무실, 주택, 공장발주가 민간건설의 침체 및 기업의 투자 기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4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IMF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98년도 국내 건설업은 고금리·고환율의 지속으로 자금 확보의 어려움, 국내·외 수주물량의 축소, 미분양 증가 및 중도금 수금 애로로 인하여 1월에 377개사, 2월에 332개사, 3월에 239개사의 건설업체가 도산하여, 1/4분기중 일반건설업체 197개사, 전문건설업체 751개사가 부도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MF이후 계속된 대형건설업체의 부도가 겨울철 비수기를 지나면서 건설공사가 착수되기 시작하고, 한계기업의 퇴출등이 어느 정도 진전됨에 따라 지난 2월이후부터 다소 진정되기는 하였으나 민간건설경기의 침체 및 고금리에 의한 자금난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어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단기간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4) 98년도 1/4분기 건설업체 부도현황
(단 위 : 개사)

구 분	'97. 12	1998년도			
		1/4분기계	1월	2월	3월
일 반	72	197	75	61	61
전 문	200	751	302	271	178
계	272	948	377	332	239

자료 : 건설교통부

2. 1998년 1/4분기 레미콘산업 동향

레미콘 산업은 98년 본격적인 IMF체제로 돌입하면서 건설업체의 연쇄부도와 부동산경기의 침체등 민간건설경기가 급속하게 냉각되었고 그에 영향을 받은 레미콘 업체들이 지난 연말 IMF위기 이후 3월 말까지 70개업체 72개 공장이 부도처리 되었으며 가동률 저하, 생산감소가 이어지면서 전국 562개업체 723개공

장에서 총 18,487,598m³를 생산하여 전년 같은 기간의 22,946,609m³보다 19.43%감소하였으며 민간건설경기의 침체를 반영, 민수의 감소폭이 두드러지면서 민·관수간 수요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수요별로 살펴보면 민수가 전년 19,483,578m³ 대비 25.63% 감소한 14,489,310m³를 생산하였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한 관수는 총 3,998,288m³를 생산하여 전년 3,463,031m³ 대비 15.46%증가하여 민수보다 관수용 레미콘이 전년에 이어 전체 레미콘산업경기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전국 레미콘생산업체 현황

(1998년 3월 31일 현재)

구 분 지역	업체수	공장수	배치플랜트		레미콘 시멘트 믹서트럭 보유대수	시멘트 사이로 (Ton)	
			기 수	레미콘생산능력			
				m³/hr	천m³/년		
서울·경인	109	157	261	48,030	96,060	7,573	172,090
강원	70	79	84	11,580	23,160	1,219	38,370
충북	44	46	55	7,650	15,300	950	25,500
대전·충남	72	91	122	19,254	38,508	2,081	79,510
충북	47	51	66	10,460	20,920	1,167	39,290
광주·전남	63	77	92	14,940	29,880	1,885	52,510
대구·경북	90	101	133	20,944	41,888	2,362	95,800
부산·경남	94	106	152	24,134	48,268	3,169	107,865
제주	15	15	19	2,970	5,940	310	10,130
전국총계	562	723	984	159,962	319,924	20,716	621,065

주 : 1. 전국 업체수는 지역 중복을 피한 수치임.
2. 연간 생산능력은 년 250일, 1일 8시간 가동 기준임.
3. 시멘트사이로는 각 레미콘공장 보유 시멘트사이로의 합계임.

특히 정부주도의 공공공사가 안정적으로 진행된 충북, 광주·전남지역, 부산·경남지역의 관수출하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IMF체제에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투자심리의 위축으로 기업들에 의한 건설투자가 감소하였고 대형건설업체 및 대기업들의 부도사태로 인한 일시적인 공사중단, 부동산경기의 침체등 1/4분기중 민간건설경기가 회복의 기

미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풀이된다. 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수용 레미콘이 출하되는 공공건설공사에는 도로, 교량, 항만등 SOC시설을 비롯하여 환경관련 시설등 전년에 계속되던 공사가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

지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하였다. 지역별로 대구·경북지역의 출하감소가 가장 두드러졌는데 대구·경북지역의 대표적인 주택업체인 청구, 보성을 비롯한 이지역 건설업체의 절반정도 가량이 부도로 쓰러졌고, 부

(표 6) 98년 1/4분기 지역별 레미콘 출하 현황

(단위 : m³, %)

지 역	수 요 별	1998년	1997년	증감율
서울·경인	민 수	6,221,576	7,461,259	-16.61
	관 수	978,509	834,214	17.30
	계	7,200,085	8,295,473	-13.20
강 원	민 수	473,109	642,988	-26.42
	관 수	117,823	119,313	-1.25
	계	590,932	762,301	-22.48
충 북	민 수	503,243	631,561	-20.32
	관 수	136,376	81,845	66.63
	계	639,619	713,406	-10.34
대전·충남	민 수	1,308,173	1,912,928	-31.61
	관 수	346,892	320,664	8.18
	계	1,655,065	2,233,592	-25.90
전 북	민 수	673,813	768,921	-12.37
	관 수	337,242	349,996	-3.64
	계	1,011,055	1,118,917	-9.64
광주·전남	민 수	1,408,714	1,769,766	-20.40
	관 수	650,885	516,421	26.04
	계	2,059,599	2,286,187	-9.91
대구·경북	민 수	1,207,148	2,525,113	-52.19
	관 수	492,660	449,905	9.50
	계	1,699,808	2,975,018	-42.86
부산·경남	민 수	2,518,537	3,534,286	-28.74
	관 수	817,502	688,430	18.75
	계	3,336,039	4,222,716	-21.00
제 주	민 수	174,997	236,756	-26.09
	관 수	120,399	102,243	17.76
	계	295,396	338,999	-12.86
합 계	민 수	14,489,310	19,483,578	-25.63
	관 수	3,998,288	3,463,031	15.46
	계	18,487,598	22,946,609	-19.43

동산 경기침체, 중도금납부 중단, 금융대출 중단 등 악재가 겹쳐 지역건설경기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으며 건설업과 관련된 레미콘 및 기타 건자재업체의 가동율이 예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민수는 전년 2,525,113m³에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1,207,148m³를 출하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관수는 대구 지하철 2호선, 체육시설, 기타 도로공사등에 492,660m³가 출하되어 전년 449,905m³대비 9.50% 증가하였다. 이외에 대전·충남지역(-25.90%), 강원지역(-22.48%) 부산·경남지역(-21.00%)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집계되었다.

98년 1/4분기 레미콘산업의 특징은 민간건설경기의 극심한 침체와 금융 위기로 인한 대규모 건설업체의 연쇄 부도가 중·소레미콘업체의 도산이 이어져 38개업체 40개공장이 1/4분기중 부도로 쓰러지며 생산을 중단하여 레미콘 출하 증가폭이 대폭 감소하였다.

또한 전년에 이어 민수용 레미콘의 급격한 감소에 비해 관수용 레미콘은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하여 민수와 관수의 출하의 양극화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3. 1998년도 건자재수급 전망

1) 레미콘 수급전망

하반기에는 건설경기의 장기적인 침체와 신규착공 공사의 감소, 중소 건설사의 부도와 미분양 주택의 장기적인 적체등 건설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일부 지방의 경기가 최악의 상태에 달하고 있고 레미콘 출하를 유발할 만한 대규모 사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전년에 이월된 공사가 진행되었던 상반기보다 수요 감소의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상반기에는 전년 61,829천m³대비 20.9%감소한 48,900천m³를 출하할 것으로 추

정되며 하반기에는 54,400천m³를 출하하여 전년동기대비 23.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7] 레미콘 수급 전망 (단위: 천m³, %)

구 분	1998년도		
	상반기 ^a	하반기 ^e	합 계
전 국 총 계	48,900 (-20.9)	54,400 (-23.8)	103,300 (-22.4)

주: ()는 전년대비 증감률임.

2) 시멘트 수급실적 및 전망

'97년말에 불어닥친 국제통화기금 환파가 국내 건설산업을 위축시켜 시멘트 수요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 더구나 에너지 다소비 산업중의 하나인 시멘트 산업은 연료 및 원료의 수입에 의한 제조원가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원화 가치 하락으로 최근 경영의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으며 특히, IMF환파가 국내 건설경기중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미쳐 각 공장마다 생산된 시멘트의 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4분기에 23%, 2/4분기에 22.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3/4분기에는 10,856천톤으로 전년에 비하여 30.4%, 4/4분기에는 13,245천톤으로 22.3%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해 총수요는 전년보다 24.4% 감소한 46,664천톤이 될것으로 보인다.

[표 8] 시멘트 수급전망 (단위: 천톤, %)

구 분	'97	1998년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전 국 총 계	61,751 (-2.8)	46,664 (-24.4)	8,872 (-23.0)	13,691 (-22.1)	10,856 (-30.4)	13,245 (-22.3)

주: ()는 전년동기 증감율이며, 98년도 1/4분기는 실적치 임. 자료: 건설산업연구원